



이용대·정재성 서틀콕 ‘눈물의 동메달’

승리의 환호 배드민턴 국가대표 이용대·정재성이 5일 런던 웹블리 아레나에서 열린 배드민턴 남자복식 3.4위 경기에 서 말레이시아 선수를 상대로 2:0 승리, 동메달을 따낸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의패배’ 악몽... 한국 배드민턴 노메달 한 풀었다

한국 서틀콕 남자복식의 간판 이용대·정재성(이상 삼성전기) 조가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동메달 획득에 성공하며 ‘고의패배’로 어수선해진 배드민턴 대표팀에 처음이자 마지막 메달을 선사했다. 세계랭킹 1위 이용대·정재성 조는 5일 오전(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웹블리 아레나

에서 열린 대회 남자복식 동메달 결정전에서 말레이시아의 쿠킨키드-탄분형(말레이시아) 조에 2-0(23-21 21-10)으로 이겼다. 이로써 이용대·정재성 조는 여자복식조의 ‘고의패배’ 사태로 4명의 선수가 실격처리돼 조기국귀하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은 대표팀에 값진 동메달로 위안을 줬다.

특히 대표팀은 남자단식·여자단식·혼합복식·여자복식 등 4개 종목에서 모두 메달 획득에 실패해 역대 올림픽 사상 첫 ‘노메달’을 기록할 뻔했지만 이용대·정재성 조의 동메달로 겨우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2000년 시드니 대회(은1개·동1개) 이후 8년 만에

금메달을 따지 못한 데다 성적도 가장 저조해 ‘최악의 올림픽’으로 남게 됐다. 조별리그 D조 최종전에서 만나 2-0으로 꺾은 쿠킨키드-탄분형 조를 다시 만난 이용대·정재성 조는 1세트에서 듀스 점진 끝에 23-21로 겨우 이겨 한숨을 돌렸다. 이용대·정재성 조는 2세트에서 이용대의 재치있는 네트플레이와 정재성의 후위공격에 힘이 실리면서 점수 차를 15-7까지 벌린 뒤 깔끔한 마무리로 경기를 끝내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연합뉴스

여자 핸드볼 8강 진출

난적 스웨덴 32-28 격파... 3승1무1패

한국 여자핸드볼 대표팀이 스웨덴을 꺾고 런던올림픽 조별리그 경기를 3승1무1패로 마쳤다. 강재원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5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런던 올림픽파크 내 코퍼 북스에서 열린 B조 5차전에서 스웨덴을 32-28로 눌렀다. 3승1무1패가 된 한국은 프랑스(3승1무), 노르웨이, 스페인(이상 2승1무1패)의 이남 조별리그 최종전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가 정해진다. 이미 8강 진출이 확정된 한국은 조 2위가 될 경우 A조 3위와, 조 3위가 되면 A조 2위와 8강에서 맞붙는다. A조에서는 러시아와 브라질, 크로아티아가 나란히 3승1패로 선두권을 형성한 가운데 몬테네그로가 2승2패로 그 뒤를 쫓고 있

다. 조 최하위 스웨덴(5패)을 맞아 전반 중반까지 9-11로 끌려간 한국은 유은희(인천시체육회)와 우선희(삼척시청)의 연속 득점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고 이후 권한나(서울시청)가 또 연속 득점에 가세해 전반 26분께 13-12로 역전에 성공했다. 기세가 오른 한국은 이은비(부산시시설관리공단)와 유은희, 우선희가 연속 골을 넣어 전반을 16-13으로 마치고 후반 들어서는 풀골 4~5골 차리드를 유지한 채 승리를 지켜냈다. 유은희가 혼자 10골을 퍼부었고 권한나와 정지혜(삼척시청), 조효비(인천시체육회)가 5골씩 넣었다. 여자핸드볼 8강 경기는 7일 열린다. /연합뉴스

경기 규칙 바뀌도 金은 한국

양궁 금3·동1... 규정 변화·전력 평준화 속 훌륭한 방어

한국 양궁이 경기 규정의 변화와 급속도로 진행되는 전력 평준화를 상대로 훌륭한 방어전을 치렀다. 한국은 런던올림픽 양궁에서 남녀 개인전과 여자 단체전 금메달을 수확했다. 남자 단체전에서도 동메달을 따. 세부종목이 4개인 양궁에서 한국이 금메

달 3개를 획득한 것은 1988년 서울, 2000년 시드니, 2004년 아테네 대회 이후 네 번째다. 결과를 살펴보면 매우 좋은 성적이다. 그러나 경기 내용을 보면 그 지위를 앞으로 더 오래 지켜가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나온다. 안정적인 고득점이 장점인 한국 선수들이 경쟁국 선수들보다 기량이 뛰어난 것은 사

실이지만 경기에서 변별력을 갖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득점 합계 대신 세트 승점으로 승부를 가리는 경기 규정이 개인전에 도입돼 큰 변화가 예고됐다. 한국은 남녀부 개인전 금메달을 모두 획득해 결과는 만점이지만 내용에서는 불안한 모습이 적지 않았다. 챔피언의 골목이나 언더독의 맹활약 등

이번으로 스포츠 팬들의 흥미가 배가되기는 했으나 강자와 약자의 경계가 희미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각각의 전력 평준화 또한 피할 수 없는 난제다. 이번 올림픽 양궁에 출전한 40개국 가운데 한국을 제외하고 한국인 지도자가 감독인 곳은 무려 11개국에 이른다. 이들 지도자는 각국의 문화와 풍습에 한국 선수 못지않은 수준으로 조련해냈다. 남자 단체전에서 4강에 오른 국가는 한국, 멕시코, 미국, 이탈리아로 지도자는 모두 한국인 감독이다. 특히 미국은 한국을 준결승전에서 완파했다. 여자 개인전의 4강 출전자도 모두 한국 지도자 아래서 탐금당한 선수들이었다. /연합뉴스

기보배·오진혁 “우리는 金연인, 결혼은 아직...”

런던 올림픽 한국 선수단 화제

런던올림픽 남녀 개인전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건 오진혁(31)과 기보배(24)가 사귀는 것으로 드러나 화제다. 하지만 두사람은 “아직 깊은 관계는 아니다”며 최근 항간에 떠도는 결혼설은 일축했다. 오진혁은 4일 오전(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로열 템스 요트클럽 내의 팀 코리아 하우스에서 열린 양궁 선수단의 기자회견에서 “(기보배와) 좋은 관계로 만나고 있는 단계”라며 “결혼은 차차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 아직

결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당연히 프로즈는 하지도 않겠다”고 말했다. 기보배는 “오진혁을 준비하는 동안 훈련과정이 너무 힘들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여러 선배가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 (오)진혁이 오빠가 위로의 말이라든지 좋은 말을 많이 해주었다”면서 “호감이 있는 건 맞는데 결혼을 거론할 정도로 그렇게 깊은 관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기보배는 “(오진혁과) 앞으로도 이런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따낸 기보배와 오진혁이 메달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극전사 경기 일정

- ◇6일(한국시간)
 - ▲17시00분 사격 남자 50m 소총 3자세 예선 한진섭, 김중현
 - ▲18시05분 육상 여자 100m 허들 1라 윤도경
 - ▲20시00분 요트 남자 470 - 2인승 덩기 7경주
 - ▲21시00분 레슬링 남자 그레코로만형 60kg급 정지현
 - ▲21시00분 레슬링 남자 그레코로만형 84kg급 이세열
 - ▲22시30분 남자 핸드볼 예선 B조 대한민국 vs 덴마크
 - ▲23시41분 남자 기계체조 도마 양학선
- ◇7일(한국시간)
 - ▲00시00분 여자 하키 예선 A조 대한민국 vs 벨기에
 - ▲03시00분 역도 남자 105kg급 김하승
 - ▲05시15분 남자 라이트급(60kg) 8강 한순철 vs 가이브나자르프
 - ▲16시30분 남자 예선 B조 대한민국 vs 네덜란드
 - ▲18시19분 여자 유니클로 3km 개인추발 이민혜
 - ▲18시45분 남자 세단뛰기 예선 김덕현
 - ▲19시30분 트라이아슬론 남자 허민호
 - ▲21시00분 남자 그레코로만형 66kg급 김현우



8월 7일(화)
▲광주산행스카치 날인, 구룡폭포(계곡산행) 8월7일(화) 7시20분 연주체육관 출발, 동아병원 30분, 상북회관 40분, 광주역 50분, 문예회관(후문) 8시 T. 011-634-0776

8월 8일(수)
▲광주청록산악회 전복 부안 쌍선봉,해수욕장 8월8일(수) 7시50분 백운동 토다리 출발, 8시 교원공제회관, 8시10분 예술회관후문, 8시20분 동

ISO 9001, ISO 14001 품질인증
심사 및 컨설팅 전문
ICR 국제 품질인증원에서 귀사의 발전을 도와드립니다.
상담전화 010-2932-9099

광주i인구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T. 011-646-3450, 011-259-0284

8월 11일(토)
▲남도산사랑 8/11(토) 박장봉, 장성봉, 괴산 6시 롯데마트월드점, 6시15분 시청주차장건너편, 6시30분 비엔날레주차장

*다음카페: 남도산사랑 T. 010-4741-4433
▲광주회망도산악회 내연산 청하계곡 / 12쪽 포, 8월11일(토), 연주체육관(06시), 광주역(06시15분), 비엔날레주차장(06시30분)
*다음카페:광주회망도산악회 참조 T.010 9602 3925, 010 7750 7210

8월 12일(일)
▲광주도이타산악회 전안 박태산 & 선각산 (계곡산행) 1142m 8월 12일(일) 봉선동 도이타매장 7시출발(5분) 동아병원앞 10분 동성역1번출구 25분 동성삼익아파트앞 35분 문예후문 40분 비엔날레주차장 경우 산행분담금: 25,000(목욕비 별도)

T. 010-3786-3120, 525-3120
▲광주둘레길동호회 8월12일(일) 신안 증도 모실길(3코스) 목포대교, 고하도 경우, 7시30분 연주체육관, 7시40분 백운동 동아병원, 7시50분 광주역, 8시 문예회관 후문
*다음카페:광주둘레길동호회 T. 010-3608-9921

▲광주산행지킴이 경남 산청 왕산(필봉) 경호장 래프팅(62차), 래프팅 산행 8월12일(일) 탐승지 및 시간: 6:30 연주체육관, 6:45삼무지구 무각사 입구, 7:00 비엔날레 주차장, 7:15 철단 쌓안(호수)공원 주차장 동부@건너편 T.010-4448-4257(010)-4754-9510(현 환경), 011-445-8131(아우터)

▲광주거북이산악회 8월 12일(일) 강릉 부연동 *개다니계곡 물속 트레킹* 월드컵경기장 롯데마트주차장 04:50, 무등경기장 정문 05:10, 비엔날레주차장 05:20 T. 011-602-7882, 016-655-3006

▲광주한울산악회 8월12일(일) 경남 하동 청학동&산신봉&쌍계사, 남광주동행 07:30, 문예회관후문 08:00, 비엔날레주차장 08:05 출발 *네이버카페 한울 (http://cafe.naver.com/hanail)

8월 15일(수)
▲광주도이타산악회 통영 연화봉 8월15일(수) 6시30분 연주체육관(광주역, 비엔날레 주차장 경우) *다음카페: 광주도이타산악회 참조 T. 010-3608-4267, 010-3642-2849

▲광주청록산악회 경남 거창 아홉산 8월15일(수) 7시50분 백운동 토다리 출발, 8시 교원공제회관, 8시10분 예술회관후문, 8시20분 동광주ic 입구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T. 011-646-3450, 011-259-0284

*다음카페: 광주청록산악회 T. 011-646-3450, 011-259-0284

8월 16일(목)
▲광주둘레길동호회 8월16일(목) 군산구불길(3코스), 7시30분 연주체육관, 7시40분 연주체육관, 7시40분 백운동 동아병원, 7시50분 광주역, 8시 문예회관 후문

*다음카페: 광주둘레길동호회 T. 010-3608-9921

8월 18일(토)
▲남도산사랑 8/18(토) 웨이산, 육전 6시30분롯데

마트월드점, 6시45분 시청주차장건너편, 7시 비엔날레주차장 *다음카페: 남도산사랑 T. 010-4741-4433

8월 19일(일)
▲오산희 8월19일 산청 딱바실골 백운계곡 계곡 트레킹 무각사 6시20분, 문예정문 6시25분, 광주역광장 6시40분, 동광주 홈6시50분 *다음카페: 오산희 참조 T. 010-5152-2629, 011-606-4366

▲광주한울산악회 8월19일(일) 강원도 정선 가리왕산, 남광주동행 05:30, 문예회관후문 06:00, *다음카페: 광주한울산악회 T. 011-646-3450, 011-259-0284

스타 색소폰 연구회
회원모집
색소폰 배우고 싶은 사람 남녀노소 누구나
주임강사 이경제
경력·부평육군군악대장
·미8군 예하부대 연주단장
·완도군 청소년악단장
초청강사: 김세종(전 중군악교사)
수강종목: 테너, 알토, 소프라노
서구 화정 3동 825-13 지하1층 H.P.010-3376-9285/010-7753-1918

광주일보 창사60주년 기념 임흥길 대장과 함께하는
밀레 「한국명산 16좌 원정대, 모집

▶참가신청: 광주/전라지역 밀레 매장에서 접수 (자세한 사항은 밀레 매장 혹은 www.millet.co.kr)
▶참가특전: 참여하신 모든분께 밀레 기념품 증정
네번째 산행 8월 24일(금) / 민주지산
*일정 및 산행루트는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주)밀레 마케팅본부 (02-3153-3143, 4)
주최 | MILLET | 주관 | Mtour
후원 | 광주일보사